

인간의 희로애락과 한국어문학 ③

- 哀, 슬픔과 애도의 어문학

- ◀ 일시: 2018년 7월 10일(화) 오후 1:00 ~ 6:00
- ◀ 장소: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
- ◀ 주최: 이화어문학회
- ◀ 주관: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

1:00-1:10 회원 등록 및 접수

1:10-1:20 개회 및 회장 인사

회장: 이은정(한신대)

사회: 허윤(서울과학기술대)

1:20-1:40 안세연(이화여대)

조선 후기 시가 작품에 나타난 슬픔의 형상화와 자기치유적 성격
-가사 <군슨월이원가>를 중심으로

1:40-2:00 최선혜(선문대)

17세기 이후 망국(亡國)의 비애에 관한 조선의 문학적 형상화
-명말청초(明末淸初)의 '잔산잉수(殘山剩水)' 코드를 중심으로

2:00-2:20 신현웅(서울대)

애도의 관점에서 본 박지원의 큰누이 묘지명 창작과 개작

2:20-2:40 중간 휴식 (20분)

2:40-3:00 김윤정(이화여대)

애도 (불)가능한 신체와 문학의 정치성-한센병 소설을 중심으로

3:00-3:20 진선영(이화여대)

1970년대 대중소설의 저지전략과 자본주의적 젠더 시뮬라크르

3:20-3:40 방영심(상명대)

슬픔의 언어: 한국어 상(喪), 장례(葬禮) 언어의 의미장과 화행

3:40-4:00 중간 휴식 (20분)

4:00-6:00 종합토론

좌장: 김형태(연세대)

<지정토론자>

김태웅(성균관대), 하지영(세종대), 신윤경(장안대), 이은선(경기대), 정보람(이화여대), 손달임(이화여대)